

조사·통계 브리프

한국 25세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 상황 변화 : 2011년과 2024년 KEEP 데이터를 활용하여

김지영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종혁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전문연구원

한국교육고용패널Ⅱ(Korea Education Employment PanelⅡ : KEEPⅡ)의 8차 조사(2024년 실시) 데이터가 2025년 12월 말에 공개되었다. KEEPⅡ에 참여하는 청년은 고등학생에서 만 25세가 되어 재학, 구직, 취업 등을 하며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올해 공개된 데이터를 통해 이들의 대학 생활, 취업 준비, 교육·훈련, 자격취득, 일 경험, 가정생활 등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분석에서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이행에 관심을 두고 패널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만 25세 청년의 몇 퍼센트가 취업하였는지, 주로 어떤 산업에 종사하는지, 직업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KEEPⅠ과 KEEPⅡ 데이터를 활용해 지난 13년 사이의 변화를 비교해 보았다. KEEPⅠ 조사를 시작한 2004년 당시 만 18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¹⁾이 2011년 (8차 조사)에 만 25세가 되었고, KEEPⅡ 조사를 시작한 2016년 당시 만 17세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²⁾이 2024년(8차 조사)에 만 25세가 되었다.

당시의 상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1년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회복하고 있던 시기이고, 2024년은 코로나19 감염증 유행이 극복되고 디지털 전환이 언급되는 시기였다. 2004년 당시 고3 학생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1) KEEPⅠ은 2004년에 중학교 3학년 코hort 2,000명과 고등학교 3학년 코hort 4,000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실시하였음. 본 분석에는 고등학교 3학년 코hort만을 포함하였음.
2) KEEPⅡ는 2016년에 고등학교 2학년 코hort 10,558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실시하였음. KEEPⅡ는 2018년에 2차 조사를 실시하였음.

81.3%였고, 2017년 당시 고3 학생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68.9%였다(e-나라 지표, 2025). 15~29세 청년의 2011년의 실업률은 7.6%였고, 2024년 실업률은 5.9%였다(국가데이터처, 2025). 참고로 KEEP I 8차 조사의 성공률은 삭제 패널, 강력거절 패널, 조사불능자(군 입대, 유학, 해외 취업 등)를 제외하고 75.8%였다. KEEP II 8차 조사의 성공률은 삭제 패널, 강력거절 패널, 조사불능자(사망, 원양어선 승선, 해외 취업, 해외 연수, 유학 등)를 제외하고 약 85.8%였다.³⁾ KEEP I 과 KEEP II는 표본의 수와 조사 성공률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두 시기의 청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환경 등의 차이로 인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대략의 변화를 참고할 수 있다. 본 분석의 수치(퍼센트와 평균 등)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I
학력 분포

KEEP I 과 KEEP II에 참여한 만 25세 청년들의 학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남성 청년들이 군 복무를 마치고 복귀했거나 군 복무 중인 연령이기 때문에 학교 졸업률은 두 해 모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고등학교 졸업 학력 집단은 2011년 13.8%(남성 15.6%, 여성 11.7%)와 2024년 16.4%(남성 21.1%, 여성 11.0%)였고, 여성의 비율은 변동이 거의 없는 것에 비해 남성의 비율이 5%p 이상 상승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로 2004년과 2017년 사이에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이 하락한 결과를 반영한다. 참고로 KEEP II의 표본에 2010년부터 설립된 마이스터고등학교⁴⁾가 포함되었지만 학교 수가 많지 않으므로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에 영향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대학 졸업 학력 집단은 2011년 20.4%(남성 15.6%, 여성 26.0%)와 2024년 16.8%(남성 12.9%, 여성 21.5%)였고, 남성과 여성 모두 약 3~5%p 감소하였다. 대학교 졸업 학력 집단은 2011년 25.3%(남성 7.2%, 여성 46.4%)와 2024년 25.3%(남성 9.2%, 여성 43.5%)였고, 남성의 비율은 2%p 가량 증가하고 여성은 3%p 가량 감소하였다. 대학교 졸업률에서 남성

3) 다음의 분석 결과를 해석할 때 조사 성공률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

4)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졸업 후 취업을 목표로 하고 공업 계열의 학과가 다수임.

과 여성의 비율 차이가 가장 컸다. 기타 학력 집단의 구성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대학교 재학 중(2011년 남성 50.1%, 여성 8.9% / 2024년 남성 49.2%, 여성 18.3%), 전문대학 재학 중(2011년 남성 9.1%, 여성 2.3% / 2024년 남성 6.0%, 여성 2.2%), 대학원 재학 중(2011년 남성 2.3%, 여성 4.7% / 2024년 남성 1.7%, 여성 3.8%) 등의 순으로 분포하였다. 2011년과 2024년 사이에 고졸 남성의 비율이 증가하고 전문대학 졸업자의 비율이 감소하였으며, 대학교에 재학하는 여학생의 대학 재학 중 비율이 증가하는 등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었다.

표 1. KEEP에 참여한 만 25세 청년의 학력 분포

(단위: %)

구분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학 졸업	4~6년제 대학교 졸업	기타			소계	합계
				전문대학 재학 중	대학 재학 중	대학원 재학 중		
2011	남성	15.6	15.6	7.2	9.1	50.1	2.3	61.6 100.0
	여성	11.7	26.0	46.4	2.3	8.9	4.7	16.0 100.0
	소계	13.8	20.4	25.3	5.9	31.1	3.4	40.6 100.0
2024	남성	21.1	12.9	9.2	6.0	49.2	1.7	56.8 100.0
	여성	11.0	21.3	43.5	2.2	18.3	3.8	24.3 100.0
	소계	16.4	16.8	25.3	4.2	34.6	2.7	41.5 100.0

자료: KEEP I 과 KEEP II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

II 취업률과 고용 형태

KEEP I 과 KEEP II에 참여한 만 25세 청년들의 학력별 취업률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본 분석에서 취업은 고용되어 보수(임금)를 받고 일하는 임금근로자(아르바이트 포함. 단, 교내 아르바이트는 제외)만 포함하였다.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제외하였다. 고등학교 졸업 학력 집단의 2011년 전체 취업률 69.3%(남성 72.4%, 여성 64.5%)와 2024년 취업률 69.6%(남성 69.3%, 여성 70.1%)은 비슷하였으나, 남성의 취업률은 약 3%p 감소하고 여성의 취업률은 약 5.6%p 증가하였다. 전문대학 졸업 학력 집단의 2011년 취업률은 83.6%(남성 80.4%, 여성 85.8%)에서 2024년 취업률 76.9%(남성 71.4%, 여성 80.6%)로 다른 집단과 비교할 때 취업률의 평균은 높지만 13년 사이에 남성과 여성 모두 하락하였다.

대학교 졸업 학력 집단의 2011년 취업률은 75.2%(남성 62.7%, 여성 77.5%)

에서 2024년 취업률 66.2%(남성 48.5%, 여성 70.4%)로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많이 하락하였다. 전문대학은 약 6.7%p, 대학교는 약 9.0%p 정도 취업률이 낮아졌으며 남성의 하락 폭(전문대학 약 9.0%p, 4~6년제 대학교 약 14.2%p)이 더 컸다. 기타 학력 집단의 취업률은 약 4.6%p 상승(2011년 28.6%, 2024년 33.2%)하였고, 남성의 취업률은 약 4.9%p 높아졌으나 전반적인 취업률은 여성이 13~20%p 높았다. 기타 학력 여성의 비율은 낮지만 취업률이 높은 이유로는 일을 하면서 학교에 재학 중인 여성이 많은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2011년과 2024년 사이에 고졸 여성 집단과 기타 학력 남성 집단의 취업률이 높아졌고, 전문대학과 대학교 졸업 학력 집단의 취업률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참고로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20~29세 청년의 고용률은 2011년 10월 기준 58.4%, 2024년 10월 기준 60.7%였다(국가데이터처, 2025a).

표 2. KEEP에 참여한 만 25세 청년의 취업률

(단위: %)

구분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학 졸업	4~6년제 대학교 졸업	기타	합계
2011	남성	72.4	80.4	62.7	24.7	43.5
	여성	64.5	85.8	77.5	45.9	73.1
	전체	69.3	83.6	75.2	28.6	57.1
2024	남성	69.3	71.4	48.5	29.6	45.1
	여성	70.1	80.6	70.4	42.6	65.8
	전체	69.6	76.9	66.2	33.2	54.8

주: ‘기타’는 학교에 재학 중인 취업자를 포함하고 있음.

자료: KEEP I 과 KEEP II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

다음으로 학력별 고용 형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⁵⁾ 고등학교 졸업 학력 집단의 상용직 비율은 2011년에 80.0%에서 2024년에는 85.5%로 약 5.5% 증가하였다. 전문대학 졸업 학력 집단의 상용직 비율은 2011년에 87.2%에서 2024년에 90.3%로 약 3.1% 증가하였다. 대학교 졸업 학력 집단의 상용직 비율은 2011년에 85.3%에서 2024년 86.7%로 1.4% 증가하였다. 기타 학력 집단의 상용

5) 상용직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정해진 계약 기간 없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함. 임시직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없더라도 1년 이내에 이 일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를 말함.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매일매일 고용되어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거나, 일정한 장소 없이 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경우를 말함.

직 비율은 52.0%에서 64.4%로 약 12.4% 증가하였다. 이를 취업률 분석 결과와 연계해 보면 취업한 상태에서 대학교, 전문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청년들은 임시직 또는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그렇지만 상용직에 취업한 상태에서 학교에 재학 중인 청년의 비율이 지난 13년 사이에 증가하였다. 2011년과 2024년을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모든 학력에서 상용직이 증가하고 임시직은 감소하였다. 일용직은 학력에 따라 소폭의 증감을 나타냈다. 참고로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의 삶 실태조사’⁶⁾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청년 취업자 중에서 임금근로자는 90.7%이고, 그 비중은 상용근로자 70.7%, 임시근로자 14.3%, 일용직 근로자 5.8% 순이었다(정세정 외, 2025).

표 3. KEEP에 참여한 만 25세 임금근로자의 고용 형태

(단위: %)

구분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학 졸업	4~6년제 대학교 졸업	기타	합계
2011	상용직	80.0	87.2	85.3	52.0
	임시직	17.0	10.6	13.7	40.4
	일용직	3.1	2.2	1.0	7.5
	소계	100.0	100.0	100.0	100.0
2024	상용직	85.5	90.3	86.7	64.4
	임시직	10.4	8.2	12.3	30.5
	일용직	4.1	1.4	1.0	5.0
	소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KEEP I 과 KEEP II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

III 임금근로자의 산업 분포

KEEP I 과 KEEP II에 참여한 만 25세 청년들의 학력별 취업자가 속해 있는 산업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⁷⁾ 고등학교 졸업 학력 집단의 취업 분야는 2011년과 2024년 모두 민간서비스(44.9%, 56.5%), 제조업(39.9%,

6) 「청년기본법」에 따라 2022년부터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2024년에는 15,098명을 분석함.

7) 제조업, 건설업, 공공서비스(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민간서비스(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기타(농업, 임업 및 어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자가 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 기관; 미분류)로 구분하였음.

23.4%), 공공서비스(9.7%, 10.8%) 등의 순으로 분포하였다. 제조업은 약 16.5%p 감소하였고 민간서비스는 약 11.6%p 증가하였으며 공공서비스와 건설업도 증가하였다. 고졸 남성은 민간서비스, 공공서비스와 건설업 취업 비중이 증가하였고, 고졸 여성은 민간서비스 취업이 증가하고 공공서비스 취업 비율은 감소하였다. 전문대학 졸업 학력 집단의 취업 분야는 2011년과 2024년 모두 민간서비스(42.4%, 39.6%), 공공서비스(32.2%, 36.3%), 제조업(20.1%, 15.7%), 건설업(3.5%, 5.4%) 순으로 분포하였다. 민간서비스와 제조업은 각각 약 2.8%p와 4.4%p 감소하였고, 공공 서비스는 약 4.1%p 증가하였다. 전문대졸 남성은 건설업과 공공서비스로의 취업 비율이 증가하였고, 전문대졸 여성은 공공서비스 취업 비율이 증가하였다. 남성과 여성 모두 제조업 취업 비율은 감소하였다.

대학교 졸업 학력 집단의 취업 분야는 2011년과 2024년 모두 민간서비스(44.7%, 43.7%), 공공서비스(32.3%, 38.7%), 제조업(16.7%, 13.3%), 건설업(3.5%, 2.6%) 순으로 분포하였다. 2011년에는 대졸 남성이 제조업(47.0%)에 취업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2024년에는 민간서비스(41.0%)와 공공서비스(31.6%) 분야에 더 많이 취업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기타 학력 집단의 경우 2011년과 2024년 모두 민간서비스(59.9%, 57.5%) 분야에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었다. 기타 학력자 중에서 남성은 공공서비스 분야에 취업하는 비율이 증가(7.6%p)하였고, 여성은 민간서비스 분야에 취업하는 비율이 소폭 증가(2.6%p)하였다. 전체적으로 2011년과 2024년 사이에 제조업의 취업자 비율이 하락하고, 건설업, 공공서비스와 민간서비스 취업자 비율이 증가하였다. 민간서비스는 고졸 학력 집단, 공공서비스는 전문대학, 대학교 졸업과 기타 학력 집단의 취업 비율이 증가하였다.

참고로 2011년과 2024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청년층부가조사(만 15~29세 대상)의 산업별 취업 분포에서 제조업은 16.8%에서 15.6%로 감소하였고, 건설업은 7.3%에서 7.2%로 변화가 거의 없었다(국가데이터처, 2025c).⁸⁾ 동 조사의 2011년과 2024년 직업별 취업 분포를 확인하면 기능·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0.55%에서 18.23%로 감소하였다. 서비스·판매종사자는 21.06%에서

8) 청년층부가조사의 2011년과 2024년의 산업 분류가 상이하여 각 연도의 공공서비스와 민간서비스 비율을 직접 비교하기가 어려움.

21.8%로 증가하였다(국가데이터처, 2025e). KEEP I 과 KEEP II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의 취업 결과도 제조업이 감소하고 서비스업이 증가하는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표 4. KEEP에 참여한 만 25세 임금근로자의 산업 분포

(단위: %)

구분		제조업	건설업	공공 서비스	민간 서비스	기타	합계	
고등 학교 졸업	2011	남성	47.8	0.7	1.1	44.2	6.1	100.0
		여성	28.1	2.5	22.4	45.9	1.1	100.0
		소계	39.9	1.4	9.7	44.9	4.1	100.0
	2024	남성	26.2	7.5	8.8	54.3	3.2	100.0
		여성	17.4	3.8	15.0	61.0	2.9	100.0
		소계	23.4	6.3	10.8	56.5	3.1	100.0
전문 대학 졸업	2011	남성	34.1	3.2	11.6	49.1	2.0	100.0
		여성	11.0	3.6	45.6	38.1	1.7	100.0
		소계	20.1	3.5	32.2	42.4	1.8	100.0
	2024	남성	29.1	10.1	14.8	42.1	3.9	100.0
		여성	7.6	2.6	49.2	38.1	2.5	100.0
		소계	15.7	5.4	36.3	39.6	3.0	100.0
4~6 년제 대학교 졸업	2011	남성	47.0	3.5	11.7	37.6	0.2	100.0
		여성	12.5	3.5	35.1	45.7	3.2	100.0
		소계	16.7	3.5	32.3	44.7	2.8	100.0
	2024	남성	23.5	3.0	31.6	41.0	0.9	100.0
		여성	11.6	2.6	39.8	44.1	1.9	100.0
		소계	13.3	2.6	38.7	43.7	1.8	100.0
기타	2011	남성	19.8	3.7	9.3	61.6	5.7	100.0
		여성	10.7	1.9	29.9	55.9	1.6	100.0
		소계	17.2	3.1	15.2	59.9	4.5	100.0
	2024	남성	18.1	5.4	16.9	57.0	2.6	100.0
		여성	9.1	1.7	29.2	58.5	1.5	100.0
		소계	14.9	4.1	21.2	57.5	2.2	100.0
합계	2011	남성	33.7	2.8	8.3	51.1	4.1	100.0
		여성	13.5	3.3	36.5	44.3	2.4	100.0
		합계	21.5	3.1	25.4	47.0	3.0	100.0
	2024	남성	23.4	6.8	15.4	51.5	2.9	100.0
		여성	10.8	2.6	37.8	46.6	2.1	100.0
		합계	16.2	4.4	28.2	48.7	2.4	100.0

주: KEEP I 은 2008년에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적용하고 KEEP II는 2018년에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하였으며 두 버전을 연계해 분석함.

자료: KEEP I 과 KEEP II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

KEEP에서는 매년 ‘구직 활동을 위해 직업훈련에 참여한 경험 여부’를 조사한다. KEEP I 과 KEEP II에 참여한 만 25세 청년 임금근로자 중에서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직업훈련에 한 번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⁹⁾ 전체 취업자 중에서 직업훈련 경험이 있는 사람은 2011년도에 15.5%였으나 2024년도에는 23.3%로 증가하였다. 남성보다 여성이 직업훈련을 경험하는 사례가 더 높았으나 편차는 2011년 12.5%p에서 2024년 2.9%p로 축소되었다. 고등학교 졸업 학력 집단의 경우 2011년에 남성은 ‘기타’(23.0%), ‘제조업’(16.3%), ‘민간서비스’(10.7%) 분야, 여성은 ‘민간서비스’(33.3%), ‘공공서비스’(7.7%) 분야의 종사자들이 직업훈련을 경험하였다. 2024년에 고졸 남성은 ‘기타’(97.7%), ‘건설업’(61.4%) 분야, 여성은 ‘공공서비스’(63.3%), ‘제조업’(43.5%)과 ‘민간서비스’(42.8%) 분야의 종사자가 직업훈련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 전문대학 졸업 학력 집단의 경우 2011년에 남성은 ‘제조업’(12.9%) 분야, 여성은 ‘제조업’(24.5%)을 중심으로 ‘민간서비스’(15.7%), ‘건설업’(15.0%)과 ‘공공서비스’(14.6%) 분야의 종사자가 직업훈련을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2024년에 전문대졸 남성은 ‘기타’(64.3%)와 ‘건설업’(43.9%) 분야, 여성은 ‘제조업’(64.3%)과 ‘기타’(57.7%) 분야 종사자의 직업훈련 경험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대학교 졸업 학력 집단의 경우 2011년에 남성은 ‘공공서비스’(18.2%) 분야, 여성은 ‘제조업’(48.5%)을 중심으로 ‘민간서비스’(23.8%), ‘공공서비스’(19.1%)와 ‘기타’(16.1%) 분야의 종사자가 직업훈련을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2024년에 대졸 남성은 ‘제조업’(9.7%) 분야, 여성은 ‘제조업’(24.5%), ‘민간서비스’(24.1%)와 ‘건설업’(23.1%) 분야 종사자의 직업훈련 경험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기타 학력 집단의 경우 2011년에 남성은 ‘건설업’(20.2%)과 ‘기타’(11.1%) 분야, 여성은 ‘민간서비스’(21.5%)와 ‘공공서비스’(16.2%) 분야 종사자의 직업훈련 경험이 많은 편이었다. 2024년에 기타 학력 집단 남성은 ‘건설업’(34.5%)과 ‘제조업’(18.0%), 여성은 ‘건설업’(45.7%)과 ‘공공서비스’(25.5%) 분야 종사자의 직업훈련 경험이 높은 편이었다. 2011년과 2024년 사이에 고졸 학력, 전문대졸 학력과 기타 학력 집단을 중심

9) KEEP I 의 2~8차 조사 자료와 KEEP II 3~8차 조사 자료에서 직업훈련 참여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다고 응답한 사례 수를 분자(분모는 취업자 수)로 계산함.

으로 직업훈련을 경험한 비율이 높아졌다. 참고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부가조사(만 15~29세 대상) 결과에서는 직업훈련 경험이 2011년 15.23%(남성 12.80%, 여성 17.62%)에서 2024년에는 16.74%(남성 14.95%, 여성 18.51%)로 약간 높아졌다(국가데이터처, 2025d).

표 5. KEEP에 참여한 만 25세 임금근로자의 직업훈련 경험

(단위: %)

구분		제조업	건설업	공공서비스	민간서비스	기타	평균	
고등 학교 졸업	2011	남성	16.3	-	-	10.7	23.0	13.9
		여성	-	-	7.7	33.3	-	17.0
		소계	11.6	-	7.2	20.1	20.5	15.2
	2024	남성	40.0	61.4	49.9	30.4	97.7	36.4
		여성	43.5	35.7	63.3	42.8	-	44.7
		소계	40.4	54.5	58.0	34.2	43.7	39.1
전문 대학 졸업	2011	남성	12.9	-	4.1	7.1	-	8.4
		여성	24.5	15.0	14.6	15.7	-	15.9
		소계	16.8	9.5	13.2	11.8	-	12.9
	2024	남성	20.4	43.9	31.1	14.9	64.3	24.1
		여성	64.3	27.2	22.7	34.3	57.7	32.4
		소계	30.4	38.4	24.5	27.1	61.4	28.9
4~6 년제 대학교 졸업	2011	남성	2.9	-	18.2	8.6	-	6.8
		여성	48.5	12.8	19.1	23.8	16.1	24.6
		소계	32.8	11.2	19.0	22.2	16.0	22.4
	2024	남성	9.7	-	-	-	-	-
		여성	24.5	23.1	14.1	24.1	9.9	21.0
		소계	21.7	23.1	12.8	23.8	7.7	20.0
기타	2011	남성	2.2	20.2	-	3.2	11.1	3.8
		여성	-	-	16.2	21.5	-	16.9
		소계	1.8	16.7	9.2	8.1	9.9	7.6
	2024	남성	18.0	34.5	7.3	9.4	14.0	12.2
		여성	16.4	45.7	25.5	11.6	-	15.9
		소계	17.6	38.1	17.7	10.3	7.1	13.7
합계	2011	남성	10.3	9.2	4.5	6.3	13.6	7.9
		여성	28.4	11.8	16.4	22.4	10.7	20.4
		소계	17.2	10.9	14.9	15.5	12.2	15.5
	2024	남성	22.7	46.0	18.8	18.2	56.1	21.6
		여성	28.4	28.6	21.0	25.4	20.9	24.5
		소계	25.1	37.4	20.6	22.4	36.4	23.3

자료: KEEP I 과 KEEP II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

KEEP에서는 매년 ‘취득한 자격증의 개수와 자격명’을 조사한다. KEEP I 과 KEEP II에 참여한 만 25세 청년 취업자의 평균 자격증 취득 개수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2011년과 2024년도 만 25세 임금근로자의 평균 자격증 취득 개수는 약 1.38개와 1.39개로 비슷하였다. 고등학교 졸업 학력의 남성들은 2011년에 ‘민간서비스’(1.27개) 분야 취업자의 자격증 취득 개수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2024년에는 ‘기타’(6.00개), ‘공공서비스’(1.47개), ‘제조업’(1.33개) 분야 취업자의 자격증 취득 개수가 더 많았다. 고졸 학력의 여성은 2011년에 ‘민간서비스’(2.00개) 와 ‘공공서비스’(1.48개) 분야 취업자의 자격증 취득 개수가 많은 편이었고, 2024년에는 ‘민간서비스’(1.24개) 분야 취업자들의 자격증 개수가 많은 편이었다. 전문대학 졸업 학력의 남성은 2011년에 ‘민간서비스’(1.24개) 분야 취업자, 2024년에는 ‘공공서비스’(1.69개)와 ‘민간서비스’(1.55개) 분야 취업자의 자격증 취득 개수가 많은 편이었다. 전문대출 여성은 2011년에 ‘공공서비스’(1.46개) 분야 취업자, 2024년에 ‘민간서비스’(1.50개), ‘제조업’(1.48개), ‘공공서비스’(1.46개) 분야 취업자의 자격증 취득 개수가 많은 편이었다.

대학교 졸업 학력의 남성은 2011년에 ‘민간서비스’(1.45개) 분야 취업자, 2024년에 ‘민간서비스’(1.26개)와 ‘공공서비스’(1.21개) 분야 취업자의 자격증 취득 개수가 많은 편이었다. 대졸 학력 여성은 2011년에 ‘제조업’(2.87개), ‘기타’(2.0개), ‘건설업’(1.65개)과 ‘공공서비스’(1.43개) 분야 취업자, 2024년에 ‘건설업’(1.69), ‘민간서비스’(1.43개)와 ‘제조업’(1.41개) 등 분야 취업자의 자격증 취득 개수가 많은 편이었다. 기타 학력 남성은 2011년에 ‘제조업’(2.45개), ‘공공서비스’(1.73개), ‘민간서비스’(1.63개) 분야 취업자, 2024년에 ‘기타’(4.08개), ‘건설업’(1.66) 분야 취업자의 자격증 취득 개수가 많은 편이었다. 기타 학력 여성은 2011년에 ‘공공서비스’(2.15개)와 ‘민간서비스’(1.46개) 분야 취업자, 2024년에 ‘제조업’(2.00개), ‘민간서비스’(1.35개), ‘공공서비스’(1.31개) 분야 취업자의 자격증 취득 개수가 많은 편이었다.

전체 취업자들이 2011년과 2024년에 취득한 1인 평균 자격증 개수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2011년에는 고졸 여성, 대졸 여성, 기타 학력 남성과 여성의 자격증 취득

률이 높았고, 2024년에는 전문대졸 여성, 대졸 여성, 기타 학력 남성의 자격증 취득률이 높은 편이었다. 앞장의 분석과 비교했을 때 산업별, 학력별로 취업률이나 직업훈련 경험 비율이 높다고 해서 자격증 취득 개수가 많아지는 것은 아니었다. 참고로 20대가 취득한 '1인당 평균 자격증 취득 개수'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자료는 제공되지 않는다. 다만, 20대는 자격증 취득 시험에 가장 많이 응시하는 연령대(33.6%)인 것으로 확인된다(한국산업인력공단, 2025).

표 6. KEEP에 참여한 만 25세 임금근로자의 평균 자격증 취득 개수

(단위: 개)

구분		제조업	건설업	공공서비스	민간서비스	기타	평균	
고등 학교 졸업	2011	남성	1.00	-	-	1.27	-	1.10
		여성	1.00	-	1.48	2.00	-	1.49
		소계	1.00	-	1.48	1.60	-	1.31
	2024	남성	1.33	1.01	1.47	1.09	6.00	1.19
		여성	1.00	-	1.00	1.24	1.00	1.16
		소계	1.25	1.01	1.33	1.14	1.45	1.18
전문 대학 졸업	2011	남성	1.17	-	1.00	1.24	1.00	1.14
		여성	1.00	-	1.46	1.00	-	1.16
		소계	1.11	-	1.27	1.09	1.00	1.15
	2024	남성	1.03	1.00	1.69	1.55	1.17	1.36
		여성	1.48	1.00	1.46	1.50	1.00	1.43
		소계	1.09	1.00	1.52	1.53	1.08	1.39
4~6 년제 대학교 졸업	2011	남성	1.00	-	1.00	1.45	-	1.20
		여성	2.87	1.65	1.43	1.18	2.00	1.38
		소계	1.72	1.65	1.41	1.21	2.00	1.35
	2024	남성	1.00	-	1.21	1.26	-	1.22
		여성	1.41	1.69	1.38	1.43	1.31	1.41
		소계	1.38	1.69	1.36	1.40	1.31	1.39
기타	2011	남성	2.45	-	1.73	1.63	1.00	1.66
		여성	1.00	-	2.15	1.46	-	1.60
		소계	1.86	-	1.81	1.61	1.00	1.65
	2024	남성	1.41	1.66	1.24	1.49	4.08	1.51
		여성	2.00	-	1.31	1.35	-	1.34
		소계	1.43	1.66	1.26	1.43	4.08	1.46
합계	2011	남성	1.16	-	1.38	1.52	1.00	1.41
		여성	1.78	1.65	1.48	1.20	2.00	1.36
		소계	1.38	1.65	1.45	1.33	1.53	1.38
	2024	남성	1.27	1.46	1.32	1.39	3.32	1.41
		여성	1.40	1.47	1.37	1.39	1.12	1.38
		소계	1.32	1.47	1.36	1.39	2.34	1.39

자료: KEEP I 과 KEEP II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

VI
임금근로자의
직업 순위

KEEP에서는 매년 패널 참가자들이 주관식으로 입력한 자신의 직업을 한국고용 직업분류(KECO)에 맞춰 재분류하여 제공한다. KEEP I 과 KEEP II에 참여한 만 25세 청년 임금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직업을 1위에서 5위까지 정리한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2011년도에 고등학교 졸업 학력의 남성과 여성, 전문대학 졸업 학력 남성의 다수는 ‘경영지원사무직’(고졸 남성 12.09%, 고졸 여성 11.71%, 전문대졸 남성 14.64%), ‘전기·전자부품·제품 조립 및 검사원’(고졸 남성 5.66%, 고졸 여성 17.85%, 전문대졸 남성 7.50%)과 ‘판매원’(고졸 남성 7.62%, 고졸 여성 13.84%, 전문대졸 남성 5.87%)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전문대학 졸업 여성의 다수는 ‘보건·의료’ 관련직(간호사 10.64%,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직 8.71%, 기타 보건의료 관련직 8.24%)과 ‘사무직’(경영지원사무직 15.17%,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직 10.01%)에 취업하고 있었다.

대학교 졸업 남성은 ‘기계공학 기술자’ 18.45%), ‘경영지원 사무직’(15.52%), ‘전기전자공학기술자(엔지니어)’(8.89%)의 직업이 1~3순위를 차지하였다. 대학교 졸업 여성은 ‘사무직’(경영지원 사무직 22.23%,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직 6.31%)이 가장 다수였고, ‘학원강사(7.41%)’, ‘디자인 관련직’(6.18%), ‘사회복지 전문직’(5.41%) 등의 직업도 순위가 높았다. 기타 학력 남성은 ‘민간 서비스직’(판매 관련 단순직 8.31%, 주방장 및 조리사 6.89%, 식당 서비스 관련직 6.14%, 경비 관련직 5.13%)이 가장 많았고, ‘경영지원 사무직’ (10.42%) 종사자도 10% 이상이었다. 기타 학력 여성은 ‘사무직’(경영지원 사무직 24.83%,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직 7.75%, 비서 및 사무보조원 6.72%)이 가장 많았고, ‘디자인 관련직’(8.56%)과 ‘학교 교사’(6.72%)도 포함되었다.

2024년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 남성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직군이 ‘서비스직’(주방장 및 조리사 10.19%, 식당 서비스원 5.71%, 판매 종사자 5.67%)이었고, 고졸 여성은 ‘서비스직’(판매 종사자 10.15%, 주방장 및 조리사 6.98, 미용 서비스원 6.38%)과 ‘사무직’(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8.75%,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7.03%)이었다. 전문대학 졸업 학력 남성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직군은 ‘정비원’(기계장비 설치·정비원 9.16%, 운송장비 정비원 4.77%)과 ‘서비스직’(주방장 및 조리사 5.96%, 식당 서비스원 5.29%)이었고, 전문대졸 여성은 ‘보건·의료’ 관련직(간호사 19.14%,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9.42%)에 가장 많

이 종사하고 있었다.

대학교 졸업 남성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직군은 ‘사무직’(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10.80%, 금융·보험 사무원 3.24%,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3.20%)과 ‘학교 교사’(12.66%)였고, 대졸 여성은 ‘사무직’(경영지원 사무원 7.97%,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5.44%)과 ‘간호사’(8.82%), ‘학교 교사’(7.22%) 등의 순으로 많이 취업하고 있었다. 기타 학력 남성은 ‘서비스직’(식당 서비스원 11.40, 주방장 및 조리사 6.44%, 판매 종사자 5.77%)이 가장 많았고, 기타 학력 여성도 ‘서비스직’(주방장 및 조리사 8.02%, 판매 종사자 5.29%)과 ‘사무직’(경영지원 사무원 6.55%,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5.34%) 종사자가 가장 많았다.

연도별 전체 청년 임금근로자의 직업 순위는 다음과 같다. 2011년도에 전체 청년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직군은 ‘사무직’(경영지원 사무원 16.64%,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직 4.35%), ‘판매원’(5.02%), ‘학원강사’(4.04%)와 ‘디자인 관련직’(3.97%)이었다. 2024년도에 전체 청년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직군은 ‘서비스직’(주방장 및 조리사 6.07%, 식당 서비스원 4.36%), ‘사무직’(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4.83%,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4.33%), ‘간호사’(6.12%)였다. 참고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청년층부가조사에서 ‘15~29세 청년의 직업별 취업 분포’를 살펴보면 2011년과 2024년 사이에 전체 직업에서 ‘사무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1.45% 증가하고, 서비스·판매종사자가 0.74% 증가하였다 (국가데이터처, 2025e). KEEP 데이터에서 확인한 상위권 직업에서는 사무직이 감소하였고 음식점업 관련 서비스직이 증가하였다.

표 7. KEEP에 참여한 만 25세 임금근로자의 직업 순위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고등 학교 졸업	2011	남성 경영지원 사무직 (12.09%)	판매원 (7.62%)	전기·전자부품·제 품 조립 및 검사원 (5.66%)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5.43%)	식당 서비스 관련직 (5.40%)
		여성 전기·전자부품·제 품 조립 및 검사원 (17.85%)	판매원 (13.84%)	경영지원 사무직 (11.71%)	간호사 (10.06%)	안내 및 고객 관련 서비스직 (9.38%)
		소계 경영지원 사무직 (11.94%)	전기·전자부품·제 품 조립 및 검사원 (10.59%)	판매원 (10.14%)	안내 및 고객 관련 서비스직 (6.35%)	식당 서비스 관련직 (4.80%)

〈표 계속〉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고등학교 졸업	2024	남성	주방장 및 조리사 (10.19%)	식당 서비스원 (5.71%)	판매 종사자 (5.67%)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4.55%)	기계장비 설치·정비원 (3.94%)
		여성	판매 종사자 (10.15%)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8.75%)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7.03%)	주방장 및 조리사 (6.98%)	미용 서비스원 (6.38%)
		소계	주방장 및 조리사 (9.18%)	판매 종사자 (7.08%)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5.33%)	식당 서비스원 (5.31%)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2.89%)
전문대학 졸업	2011	남성	경영지원 사무직 (14.64%)	전기·전자부품·제품 조립 및 검사원 (7.50%)	판매원 (5.87%)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5.50%)	전기·전자부품 및 제품 제조장치 조작원 (4.30%)
		여성	경영지원 사무직 (15.17%)	간호사 (10.64%)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직 (10.01%)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직 (8.71%)	기타 보건의료 관련직 (8.24%)
		소계	경영지원 사무직 (14.96%)	간호사 (6.44%)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직 (6.05%)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직 (5.75%)	판매원 (5.73%)
4~6년제 대학교 졸업	2024	남성	기계장비 설치·정비원 (9.16%)	주방장 및 조리사 (5.96%)	식당 서비스원 (5.29%)	운송장비 정비원 (4.77%)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4.57%)
		여성	간호사 (19.14%)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9.42%)	유치원 교사 (6.79%)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6.59%)	주방장 및 조리사 (5.22%)
		소계	간호사 (12.67%)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7.37%)	주방장 및 조리사 (5.49%)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4.78%)	유치원 교사 (4.25%)
2011		남성	기계공학 기술자 (18.45%)	경영지원 사무직 (15.52%)	전기전자공학기술자 (엔지니어) (8.89%)	화학물, 플라스틱 및 고무제조 관련 조작원 (8.30%)	학원강사 (6.84%)
		여성	경영지원 사무직 (22.23%)	학원강사 (7.41%)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직 (6.31%)	디자인 관련직 (6.18%)	사회복지 전문직 (6.08%)
		소계	경영지원 사무직 (21.40%)	학원강사 (7.34%)	디자인 관련직 (5.73%)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직 (5.53%)	사회복지 전문직 (5.41%)
2024		남성	학교 교사 (12.66%)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10.80%)	소프트웨어 개발자 (7.88%)	금융·보험 사무원 (3.24%)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3.20%)
		여성	간호사 (8.82%)	경영지원 사무원 (7.97%)	학교 교사 (7.22%)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5.44%)	소프트웨어 개발자 (5.02%)
		소계	학교 교사 (7.97%)	간호사 (7.89%)	경영지원 사무원 (7.22%)	소프트웨어 개발자 (5.41%)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5.13%)

〈표 계속〉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기타	2011	남성 경영지원 사무직 (10.42%)	판매 관련 단순직 (8.31%)	주방장 및 조리사 (6.89%)	식당 서비스 관련직 (6.14%)	경비 관련직 (5.13%)
		여성 경영지원 사무직 (24.83%)	디자인 관련직 (8.56%)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직 (7.75%)	비서 및 사무보조원 (6.72%)	학교 교사 (6.72%)
		소계 경영지원 사무직 (14.64%)	판매 관련 단순직 (5.88%)	식당 서비스 관련직 (5.74%)	주방장 및 조리사 (4.88%)	디자인 관련직 (4.14%)
	2024	남성 식당 서비스원 (11.40%)	주방장 및 조리사 (6.44%)	판매 종사자 (5.77%)	소프트웨어 개발자 (5.69%)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4.17%)
		여성 주방장 및 조리사 (8.02%)	경영지원 사무원 (6.55%)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5.34%)	판매 종사자 (5.29%)	학교 교사 (5.00%)
		소계 식당 서비스원 (8.34%)	주방장 및 조리사 (7.00%)	판매 종사자 (5.60%)	소프트웨어 개발자 (4.45%)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4.33%)
합계	2011	남성 경영지원 사무직 (12.68%)	전기·전자부품·제품 조립 및 검사원 (5.47%)	판매원 (5.02%)	경비 관련직 (4.90%)	식당 서비스 관련직 (4.26%)
		여성 경영지원 사무직 (19.20%)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직 (7.16%)	간호사 (5.96%)	학원강사 (5.61%)	디자인 관련직 (5.14%)
		소계 경영지원 사무직 (16.64%)	판매원 (4.64%)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직 (4.35%)	학원강사 (4.04%)	디자인 관련직 (3.97%)
	2024	남성 식당 서비스원 (7.40%)	주방장 및 조리사 (7.03%)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5.04%)	판매 종사자 (4.53%)	소프트웨어 개발자 (4.49%)
		여성 간호사 (9.81%)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6.08%)	경영지원 사무원 (6.05%)	주방장 및 조리사 (5.34%)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4.81%)
		소계 간호사 (6.12%)	주방장 및 조리사 (6.07%)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4.83%)	식당 서비스원 (4.36%)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4.33%)

주: KEEP I은 2005년도 기준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KEEP II는 2018년에 개정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를 활용하였음.

자료: KEEP I과 KEEP II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

이 글에서는 KEEP I 과 KEEP II에 참여한 패널이 만 25세가 되어 응답한 학력, 취업률, 취업하고 있는 산업, 구직을 위한 직업훈련 참여 경험, 자격증 취득 평균 개수, 다수가 종사하고 있는 직업 순위 등에 대해 기초통계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2011년과 2024년에 만 25세였던 청년들의 노동시장 이행 과정은 13년의 간격을 두고 조금씩 달라져 있었다. 2011년과 2024년 사이에 고졸 남성의 비율이 증가하고, 전문대학 졸업자의 비율이 감소하였으며, 4~6년제 대학교 여학생의 재학 기간이 증가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학력과 관련하여 변화가 적은 부분은 절반 이상의 남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고등교육 기관(주로 4~6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에 재학하고 있다는 것이다.

취업률과 관련해 2011년과 2024년 사이에 고졸 여성과 기타 학력 남성의 취업률이 높아졌고 전문대학과 대학교 졸업자의 취업률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기타 학력 집단의 평균 취업률이 높아졌는데, 이는 2013년 이후에 직업계열 고등학교에서 강조된 ‘선취업-후진학’ 기조 또는 2014년 이후에 시행된 ‘일학습병행’ 제도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청년 임금근로자 고용 형태는 2024년에 81.7%로 상용직의 비율이 약 3% 정도 증가하였다. 이는 2024년에 조사된 ‘청년의 삶 실태 조사’(상용직 임금근로자 약 77.9%)에 비해 높은 편이다.

전체적으로 2011년과 2024년 사이에 제조업 분야의 임금근로자 비율이 하락하고 건설업, 공공서비스와 민간서비스 임금근로자 비율이 증가하였다. 민간서비스는 고졸 학력 집단, 공공서비스는 전문대학, 대학교 졸업과 기타 학력 집단의 취업 비율이 증가하였다. 직업훈련 참여는 2011년과 2024년 사이에 고졸 학력, 전문대졸 학력과 기탁 학력 집단을 중심으로 직업훈련을 경험한 비율이 높아졌다. 자격증 취득과 관련해 전체 임금근로자가 2011년과 2024년에 취득한 1인 평균 자격증 개수(1.38 개, 1.39개)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렇지만 2011년에는 고졸 여성, 기타 학력 남성과 여성의 자격증 취득률이 높았고 2024년에는 전문대졸 여성, 대졸 여성, 기타 학력 남성의 자격증 취득률이 높은 편이었다. 자격의 취득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집단의 변화에 대해 추가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산업별 학력별 취업률이나 직업훈련 경험 비율과 자격증 취득 개수에 상관은 없는 것으로 판

단할 수 있었다.

가장 변화가 큰 것은 취업한 직업의 순위였다. 2011년도에 전체 청년이 가장 많이 종사한 직업은 ‘사무직’(경영지원 사무원,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직)(20.99%), ‘판매원’(4.64%), ‘학원강사’(4.04%)와 ‘디자인 관련직’(3.97%)이었다. 2024년도에 전체 청년이 가장 많이 종사한 직업은 ‘서비스직’(주방장 및 조리사, 식당 서비스원)(10.43%), ‘사무직’(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9.16%), ‘간호사’(6.12%)였다. 2011년에 고졸 학력의 남성과 여성, 전문대졸 학력 남성의 다수가 ‘전기·전자부품·제품 조립 및 검사원’으로 종사했는데, 2024년에는 이 직업이 순위에서 사라졌고 전문대졸 남성의 다수는 ‘기계 장비설치·정비원’이나 ‘운송장비 정비원’으로 근무하였다. 2011년에는 기타 학력 남성만 ‘주방장 및 조리사’ 직업이 상위권이었는데, 2024년에는 고졸 남성과 여성, 전문대졸 남성, 기타 학력 여성의 직업으로 ‘주방장 및 조리사’가 등장하였다.

전반적으로 고졸 남성, 전문대졸 남성과 여성, 대졸 여성의 사무직 비율은 13년 사이에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사무직이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도 변화하였다. 전문대졸 여성과 대졸 여성은 ‘보건·의료직’, ‘학교 교사’와 ‘유치원 교사’와 같은 안정적인 직업이 증가하였다. 대학교 졸업 남성은 ‘공학 기술자’(27.34%)가 순위에서 없어지고 ‘사무직’과 ‘학교 교사’의 비율이 가장 높아졌다. 2024년에 대졸 남성과 여성, 기타 학력 남성의 직업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새롭게 등장하였다. 한편 상위 5개 직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1년에 33.64%에서 2024년에는 25.7%로 감소하였다. 또한 응답된 직업의 개수도 2011년에는 총 120개 직업 중에서 92개, 2024년에는 총 136개 직업 중에서 126개로 증가하였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의 직업이 더욱 다양해지고 청년층이 취업하고 있는 직업도 다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직업의 변화는 디지털 전환 가속, 이공계 기피 현상 지속, 안정적인 직업 추구, 서비스 산업 고도화 등과 같은 기술 진보와 사회 문화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청년층부가조사에서 공표하는 청년층의 특성, 제조업 비중 감소와 서비스업 성장과 같은 전반적인 산업구조 변화, 자동화와 정보화

로 인한 양질의 일자리 감소와 새로운 직업 등장 등의 현상을 대체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KEEP 데이터를 활용해 고교 단계에서부터 노동시장 이행에 이르기까지 청년층이 겪고 있는 과정을 더욱 세밀하게 연구할 수 있다. 2025년 12 월에 제공되는 8차년도 데이터에서는 청년층이 노동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구직 활동, 취업과 이직 과정, 일 경험, 임금, AI 준비도, 업무에서의 디지털 기술 활용 수준, 소프트스킬의 중요도, 자신과 사회에 대한 인식 등 다양한 변수를 제공하고 있다. KEEP II는 청년들이 만 29세가 되는 12차 조사까지 수행될 계획이다. 현재 가장 바라는 삶의 요소로 ‘내가 원하는 일자리’를 1순위로 선택하고 있는 청년층(정세정 외, 2025)을 더욱 자세하게 이해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KEEP 데이터가 더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4). 2024년 간추린 교육통계. 세종·진천: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 정세정·고혜진·김기태·김동진·김성아·오육찬·이아영·이혜정·임덕영·신영규·하은솔·한겨레·김근혜(2025).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 세종: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국가데이터처(2025a).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자료.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2S&conn_path=l2 (2025년 12월 5일 인출).
- 국가데이터처(2025b).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실업률 자료. <https://www.index.go.kr/unify/info.do?idxCd=5028> (2025년 12월 5일 인출).
- 국가데이터처(2025c).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 총부가조사 산업별 취업 분포 자료.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9072&conn_path=l2 (2025년 12월 5일 인출).
- 국가데이터처(2025d).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성별 직업교육(훈련) 경험 유무 및 시기.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9053S&conn_path=l2 (2025년 12월 5일 인출).
- 국가데이터처(2025e).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직업별 취업 분포 자료.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9076&conn_path=l2 (2025년 12월 5일 인출).
- e-나라지표(2025). 취학률 및 진학률 자료.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20 (2025년 12월 5일 인출).